

본 논문은 구약의 국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의 역사적 위치와 그의 활동 및 의의를 조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편촬요, 구약구약성경 및 개역 구약성경의 역사와 피터스의 활동을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터스에 대한 오해를 수정할 수 있으며 그의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보다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

## 구약 국역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彼得)의 위치와 의의

---

김 중은 | 장신대

### 1. 구약 국역사와 알렉산더 피터스

구약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역사(구약 국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비단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우리 말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흥미로운 것이다. 그 동안 신구약 국역사에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흩어져 문혀 있던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어느 정도 그 역사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sup>1)</sup> 이 소논문에서는 구약 국역사 전반에 관해서 새로운 정리를 시도하거나 이미 구약학계에 잘 알려진 내용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하나의 성경”이라고 알

---

1)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55쪽; 민 영진, “우리말 번역 성서,”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181-195쪽; 류대 영/옥성득/이만열, “구약과 개역성경의 번역과 출판,”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3-204쪽. 같은이, “한국어 성경 서지목록,”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683-690쪽; 민 휴, “조선어성경의 유래,” 류 형기(편), 「단권성서주석」 (서울: 송문사, 1949), 53-58쪽 등 참조.

려져 있는 개역성경에서 구약번역의 실제적인 주역 역할을 수행했던 알렉산더 피터스(이하 피터스)의 역사적 위치와 그의 개역작업의 의의를 사료에 근거하여 좀 더 가까이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구약 국역사에서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1871년 12월 30일 출생 - 1958년 6월 29일 별세)가 1898년에 번역하여 출간한 「시편촬요」는 구약 국역의 효시(嚆矢)를 이루었고, 피터스는 구약 국역의 선구자가 되었다.<sup>2)</sup> 피터스는 러시아 에카테리노슬라브(Ecaterinoslav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고향에서 1888년에 고전 인문 고등학교(Classical Gymnasium)를 졸업한 후, 그 당시 혹심한 경제난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그는 고향집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으로 향했다. 먼저 호주에 가려고 지중해안의 포트사이드까지 갔으나 호주에 가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 미국으로 가려고 홍콩에 도착한다. 홍콩에서 미국도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미국행을 접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시베리아 철도부설 노동자로 취직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일본 나가사키에 오게 된다. 피터스는 나가사키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1895년 4월 7일 주일 아침에 그 곳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여기서 피터스는 예배를 드린 후 화란 개혁신교회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의 피터스(Albertus Pieters) 담임목사를 만났으며, 자원하여 그에게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4월 19일 저녁 피터스 목사의 사택에서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이 개종을 하면 그의 성을 바꾸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직 알렉산더 피터스의 유대인 본명을 알지 못한다. 그는 세례 받은 후 그의 이름을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나가사키의 피터스 목사의 이름(성)을 따라 개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 주재하던 미국 성서공회 루미스(Henry Loomis 1839-1920) 총무는 유대인 청년 피터스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났다. 4월 21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려는 피터스에게 루미스 총무는 미국 성서공회가 파송하는 권서(勸書 colporteur)로서 피터스가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기쁨으로 수락되었고, 피터스는 영어를 배우면서 동년 5월 16일 부산과 제물포를

2) 김 중은, "구약 국역의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 「구약의 말씀과 현실」, 61-76쪽.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만 24세의 미혼 청년 피터스는 곧장 한국어를 배우면서 서울 근교에서 권서활동을 시작했다.<sup>3)</sup>

피터스가 한국에 도착한 1895년 국역성경의 상황은 1887년에 소위 로스역 신약전서가 출판되어 있었다. 구약 국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885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선교사를 선두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한 이래, 1887년에 처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상임성서위원회'(The Permanent Bible Committee)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1893년에 '상임성서실행위원회'(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 The Bible Committee of Korea)로 재조직되었고, 동년 10월에 공인번역위원회(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를 만들어 본격적인 성경 국역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이 번역위원회에서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1916), 아펜젤러(Henry Gerhart Apenzeller 亞扁薛羅 1858-1902) 그리고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 1863-1937)이 주로 활약했으며, 1895년에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李諤瑞 1867-1951)가 번역위원에 선출되어 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번역위원회는 먼저 신약번역에 착수하여 1900-1906년에 기존의 로스역 신약전서를 대체할 신약전서를 확정하여 출간했다. 피터스가 한국에 온 1895년에 구약 국역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요원하게만 느껴졌다.

## 2. 시편촬요(1898)

피터스는 1895년 5월부터 1898년 6월까지 미국성서공회 일본 지부 루미스 총무의 관할아래 한국에서 권서의 일을 열심히 했다. 권서로서 활동하면서 피터스는 당시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읽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직 구약이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없으므로 구약성경이 공인번역위원회를 통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권서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편을 번역하여 한국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 결과 피터스가 시

3) 김 중은, "구약 국역의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 64-70쪽;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사자, 복음전도자, 1895-1911," 「평양대부흥 100 주년기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조명」(서울: 내국교회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21-79쪽; 민 영진, "피터스의 시편촬요," 「감신대학보」 17호(1979) 등 참조.

편 중에서 발췌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시편촬요가 1898년 말에 출간되었다. 그동안 피터스가 구약번역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루미스는 그가 권서 직에 전념할 것을 충고했다. 이와 함께 루미스는 재정적인 이유와 한국의 정치상황의 불안 이유로 한국에서 권서활동의 잠정적인 중단을 본부에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터스는 미국성서공회의 권서직을 사임했고, 당시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대영성서공회(BFBS) 지부로 옮겨서 1898년 7월부터 1899년 말까지 부총무 겸 권서로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편촬요가 구약 국역의 효시로서 출간된 경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첫 성경번역에 관해 피터스 자신이 쓴 글에 잘 나타나 있다.<sup>4)</sup> 그 글에서 시편촬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를 믿게 되고, 미국성서공회의 권서로서 나는 1885년 한국에 오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성서위원회가 신약을 번역하고 있었고, 구약이 앞으로 번역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히브리어 기도서를 읽고 시편의 아름다움과 영감을 맛보면서 암송할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최소한 시편 중에 얼마라도 번역해 주고 싶었다. 저주시편을 빼고 시편의 절반정도의 분량을 번역하는데 약 1년이 걸렸다. 한국어를 잘하는 네 분 선교사에게 번역원고를 보여 드리고 인정을 받았다. 1898년에 출간된 시편촬요는 8년 동안 유일한 한국어 구약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시편촬요는 189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2500부가 당시 서울의 감리교 삼문출판사를 통해 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편촬요는 가로 18Cm 세로 12Cm이고, 순전히 국문으로 인쇄되었으며, 모두 65쪽의 분량이다. 시편의 절반가량을 번역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편 150편중에서 62편만을 골라 수록하고 있다. 부득이 사용한 한자어에 관해서는 책 말미에 2쪽 분량의 “문자 초집”이라는 난을 마련하여 한자어를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 시편촬요는 피터스의 개인역이지만 당시 상임성서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출판되었다.<sup>5)</sup> 박 용규는 시편촬요의

4) Alex. A. Pieters,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38), 91-93쪽.

5) 류 대영/옥 성득/이 만열, "한국어 성경 서지목록, 1882-1945," 684쪽 참조.

출간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편촬요는 출판되자마자 수요가 폭발했다. 곧 매진되었다. 루미스의 말을 빌린다면, 수요를 다 감당치 못할 정도였다. 마가렛 힐스가 지적한 대로, ‘그것(시편촬요)은 1911년 구약에 사용된 시편번역에 공헌했다.’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의 시편 번역은 피득의 번역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약간의 문장 수정만 했을 정도로 시편촬요는 한글 구약성경 시편번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파송된 다른 선교사도 시편 번역을 착수했지만 피득의 번역에는 따라갈 수 없었다.”<sup>6)</sup>

1995년 구약 석사학위 논문에서 시편촬요를 연구한 정 비호의 연구결과에서도 시편촬요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최초의 구약 국역으로서 이후 구약 구역(1911년 판)과 개역에 직간접적으로 끼친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시편촬요는 될 수 있는 대로 한자어를 피하고 다소 길어지더라도 쉬운 한글을 많이 쓰는 번역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시편의 운율을 번역문에서도 표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 참조하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점 등은 구약 국역사에서 시편촬요의 공헌이며 매우 자랑스럽고 돋보이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민 영진은 “... 피득씨에 대한 재발견은 한글성서 독자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다”고 평가했다.<sup>8)</sup>

### 3. 구약 구역(舊譯) 시대(1904-1911)

위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1893년부터 공인번역위원회는 신약번역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시편촬요가 1898년에 출간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비로소 구약번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아펜젤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언더우드가 시편을, 트롤로프(Mark Napier Trollope 조마가 1862-1930)가 잠언을, 게일이 사무엘상과 하를, 스크랜톤(William

6)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51쪽.

7) 정 비호, “시편촬요(1,2,8편)에 나타난 피터스의 번역원칙이 한글성서번역에 끼친 영향 연구-MT, 문리역(1910), 구약전서(1930), 시편(1936)과의 비교,” (김리교신학대학원 구약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참조.

8) 민 영진, “피득의 시편촬요,” 참조.

Benton Scranton 施蘭敦 1856-1922)이 이사야서를 각각 초역하기로 분담했다. 1900년에 위원회의 신약전서가 일단 서둘러 출판된 이후 구약번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번역위원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여 아펜젤러와 그의 한국인 조수 조한규가 별세하는 해난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후 구약번역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고, 1904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다시 구약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 때 번역위원으로는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 3인이 주축이 되었다. 이들은 위원회를 통해 먼저 창세기과 시편 번역을 확정하여 1906년에 각각 낱권으로 출판하였다. 개인역인 시편찰요가 출판된 지 8년 만에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공인하는 구약국역(소위 구역)이 처음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피터스는 시편찰요를 출간한 이후 성경(특히 구약) 번역자로서 선교사들의 격려와 주목을 받았다. 그는 1899년 대영성서공회 서울 지부에서 일하던 자리를 사직하고, 1900년 1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났다. 맥코믹 신학교에 3년간 재학하는 동안 피터스는 1901년에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본부에 선교사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사역지로는 한국을 희망했다. 피터스는 1902년에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 북 장로회 목사로서 안수 받았으며, 동년 8월 16일 엘리자벳 캠벨(Elizabeth Campbell)과 결혼하고, 두 사람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첫 임지로 지정된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잠시 지난 후, 피터스 선교사 부부는 1904년 5월 16일 다시 한국으로 전근하게 된다. 피터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루미스는 한국에서 구약번역을 하는데 그가 적임자라고 여겨서 미국성서공회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터스야말로 구약번역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 나는 그가 구약번역을 완성하도록 허락되기를 희망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수정하거나 통일하려고 함으로 그 일이 방해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피터스를 준비시켜 오신 듯 보입니다.”<sup>9)</sup>

9)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 59-60쪽에서 재인용.

피터스는 한국에 도착하여 미 북장로회 서울 남부지역 선교구를 맡아서 전도와 교회개척, 사경회 인도 등에 전력했다. 피터스는 이 당시 맥코믹 신학교 동급생이었던 곽안련 선교사와 함께 일했다. 이러한 가운데 1906년 1월에 피터스는 첫 부인과 사별하게 된다. 그 해에 피터스는 공인번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07년에 쓴 선교보고서에서 피터스는, “지난해 동안 나의 사역은 두 종류 즉 성경번역과 복음전도 사역이었다.”라고 했다.<sup>10)</sup> 피터스가 번역위원으로 선임된 1906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공인번역위원회에서 주로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가 작업한 창세기와 시편이 이미 각각 낱권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루미스는 한국에서 구약번역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여 미 장로회 선교본부 책임자인 브라운 박사에게 편지하게 되었고, 루미스의 편지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번역위원이면서 시편을 초역한 언더우드는 루미스의 견해에 관해 매우 격렬하게 반박하는 편지를 다시 브라운 박사에게 보냈다.

이 서신에서 언더우드는 일찍이 루미스가 피터스를 권서로 한국에 추천해 보낸 일로 부터 시작하여, 루미스가 한국에서 성경번역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가 추천하는 피터스는 아직 성경번역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루미스가 피터스의 시편번역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언더우드 자신이 번역하여 위원회역으로 출판하려는 시편 역은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불충분한 번역이라는 견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시편의 번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우리는 피터스 씨가 시편 번역을 출판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 그러나 ... 피터스 씨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더우드 박사는 시편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을 마쳤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비평작업의 도움을 받으며 원문으로부터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 번역위원회 앞에 있는 이 시편 개정본은 언더우드 박사의 작업을 바탕으로, 물론 피터스 씨의 번역(시편철요)이 줄 수 있는 제안들과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sup>11)</sup>

10)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 72쪽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는 자신을 포함하여 공인 번역위원들이 구약 히브리어 실력이 없다고 말한 루미스의 지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해명하고 있다:

루미스 박사는 우리의 히브리어 지식에 대해 평가할 처지가 아닙니다. “게일 박사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라든지, 다른 곳에서 “게일 박사는 히브리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 그리고 또 다시 “언더우드 박사는 신학교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정도밖에는 없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학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참고하고 모든 도움을 받아 어떻게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sup>12)</sup>

이와 같이 그 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약시대 초기부터, 특히 구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전을 읽는 실력이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언더우드는 이 때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요구되는 ‘성경 번역의 이론’(Theory of Bible Translation)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전적으로 번역 사역을 전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는 원칙과, “문서사역만을 전적으로 맡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한 번역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sup>13)</sup> 이러한 번역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루미스가 피터스를 전적으로 구약번역의 주역으로 천거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루미스와 공인번역위원회 사이의 갈등은,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예수 믿고 한국에 와서 4년 이상 권서활동을 하면서 구약 국역의 효시인 시편촬요를 출간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이제 정규

11) 김 인수 (옮기고 엮음),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 편지, 1885-1916」(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73쪽. 여기서 피터스의 이름을 ‘피에터스’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또 1069쪽에 있는 본래 영문 편지를 대조하여 인용문을 본 필자가 다소 수정하였다.

12) 김 인수, 뒷글, 480쪽; 1067쪽 영문 대조.

13) 김 인수, 뒷글, 480-481쪽, 1067-1068쪽 영문 대조.

신학을 공부하여 미국 복장로회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 돌아온 피터스가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히브리어 실력이 뛰어나며 구약번역의 주역으로서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피터스가 그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루미스의 다소 과도한 간섭과 집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언더우드는 이 당시 구약 번역자로서 피터스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었다. 다시 그의 편지에서 피터스에 관한 언더우드 편지의 직선적인 견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피터스 씨가 그 일(성경 번역)을 하기에 적당한 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의 그리스어, 히브리어나 또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판단하는 루미스 박사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의 히브리어 지식은 그로 하여금 섬세한 분별력을 가지고 특히 번역 작업을 위해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비평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실에 우리는 그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히브리어를 배우며 얻게 되었던 그런 지식이어서, 그 정도의 지식으로 그는 ‘왜 이방들이 동요하는가?’(Why are they tumultuous?)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왜 이방들이 격노하는가?’(Why do the heathen rage?), ‘왜 이방들이 화를 내는가?’(Why are the heathen angry?)라고 번역합니다. 그의 한국어 지식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학교 수업시간에 그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억양과 좋지 않은 발음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것은 상당 부분 그가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되어 있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적어도 여기 선교사들 중에는 그가 아직 성경 번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실행위원회(the Bible Executive Committee)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루미스 씨가 피터스 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sup>14)</sup>

언더우드가 쓴 것으로 알려진 이 편지에는 서명이 없다. 그런데 주어에 ‘우리’를 사용한 것이나 언더우드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상 언더우드와 게일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14) 김 인수, 481-482쪽, 1068-1069쪽 영문 대조. 본 필자가 한글 번역문을 수정하여 인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06년에 게일은 휴가를 위해, 언더우드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양차,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떠났다. 그래서 (상임)성서실행 위원회는 부족한 구약번역 위원을 충원하기위해 1906년 10월 3일부터 크램(Willard Gliden Cram 奇義男 1875-1969)과 피터스를 공인번역위원회의 번역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때 부터 1907년 말까지 레이놀즈, 크램, 피터스 3인이 구약번역을 추진해 나갔다. 1907년 7월에는 한국인이 창직과 김 정삼이 공인번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07년 말에는 피터스가 초역한 전도서가 공인번역위원회역으로 확정되었으나 낱권으로는 출판되지 않았다. 피터스는 1908년 3월 미장로회 해외선교부 파송으로 내한하여 의사로서 의료선교에 종사하던 에바 필드(Eva H. Field 1868-1932)와 재혼하였고 여기서 두 아들 르우벤(Reuben Field 1908)과 리처드(Richard Sawyer 1910)가 태어났다.

1908년 4월에 레이놀즈는 소속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전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김 정삼은 이눌서를 따라 전주로 갔다. 이 창직은 갈 수 없어서 레이놀즈는 이 승두라는 조수를 데리고 갔다. 이 세 사람이 소위 '전주번역 분과'를 이루어 구약 번역작업을 했다. 이때쯤 서울에는 게일이 돌아와 있었고, 크램과 피터스는 선교지의 순회전도와 교회개척 사역 때문에 번역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웠다. 그 동안 피터스는 사실 게일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한편 레이놀즈는 이 승두를 번역 위원으로 천거하여, 1908년 10월 31일부터 이 승두도 번역위원이 되었다. 전주에서 레이놀즈는 서울에 있는 게일과 연락하면서, 전주에서 구약 번역(구역)의 완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06년 창세기와 시편으로 부터 시작하여 1908년 이사야서 까지 이미 번역 확정된 구약의 책들은 공인번역위원회 역으로 채택되어 낱권 형식으로 모두 10권이 출간되었다. 1909년 말 언더우드도 들

15) 일본에서 수행된 한국 성서 사업과 관련한 '미국 성서공회 일본지부 서 신철, 1883-1909'에 보관되어 있는 '루미스 서신'자료는 다음 문건에서 참고할 수 있다: 옥 성득/이 만열(옮기고 역음),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298-673쪽. 이 루미스 서신 자료에는 피터스의 이름이 약 25회 나타나 있다. 이 서신자료에서 편역자가 '피터즈'라고 표기한 것은 '피터스'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것이다.  
 16) 피터스 자신은 1907년 선교보고서에서, "지난해 동안 나의 사역은 두 종류 즉 성경번역과 복음 전도 사역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A. A. Pieters, "Report for the year 1906-1907,"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 72쪽에서 재인용.

아와서 구약 번역에 가담했다. 1910년에 들어서서 게일은 예레미야서를, 레이놀즈는 에스겔서를, 언더우드는 스가랴서를 번역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10년 4월 2일 전주분과에서 서울에 있는 대영성서공회 지부 밀러(H. Miller) 총무 앞으로 “번역 다 도였소라”라는 전보가 도착했다. 이제 구약 전체의 국역작업이 일단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놀즈에 의하면, 공인번역위원회가 구약 국역을 끝내는 데는 1904년 10월 17일부터 1910년 4월 2일 까지 5년 5개월 16일이 걸린 셈이다.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합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전서가 1911년 3월 9일 구약 2권, 신약 1권으로 출간됨으로써, 그 역사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한글 구약 성경전서이다.<sup>17)</sup>

구약 구약번역의 문제점으로는 히브리어의 회화적인 관용어법을 위시하여, 특히 제사 예식법, 회막 건축을 위한 자세한 지시내용, 성전에 관한 묘사, 이사야서 예언의 비범한 내용, 에스겔의 환상 등을 번역하는데 번역위원들의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거의 의기소침해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수용어인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구약의 어휘들은 이미 한문성경에서 정착된 용어를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sup>18)</sup>

#### 4. 구약 개역(改譯) 시대(1912-1938)

1911년 3월에 구약 성경전서가 출판되면서 공인번역위원회는 개역위원회(the Board of Revisers)로 발전적 해체를 했다. 1911년 판 구약 성경전서는 우선 고유명사 음역표기를 통일하는 일이 시급하였다.<sup>19)</sup> 개역작업은 상임성서실행위원회의 지도아래, 실무는 대영성서공회 서울지부의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영성서공회 서울지부 총무 민휴(Hugh Miller 閔休 1872-?)는 1902년 1월 개역위원회에 대영성서공회가 정한 ‘성경 번역, 개역, 편집에 관한 지침과 규정’<sup>20)</sup>을 담은 소책자

17) 구약 국역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조회한다: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26쪽 이하.

18) W. D. Reynolds, “Translation of the Scripture into Korean,” *The Language Files of the Translations Department, Korean I, 1901-1922* (BFBS) = 「1910년 구약 국역 완료 보고서」, 6쪽;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32쪽 참조.

19) 구약에는 약 2500개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분량의 30.3%에 해당하는 것이다.

20) Rules for the Guidance of Translators, Revisers, & Editors, working in connection with the

를 전달했다. 성경의 고유명사 음역 통일 방안은 1912년 7월부터 레이놀즈가 한국인 조수들과 함께 마련하여 언더우드의 검토를 거쳐 1913년 개역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구역의 구역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개역작업은 1915년 황해도 구미포 송천(소래) 해변에 있는 언더우드의 별장에서 시작되었다. 개역위원들로서 언더우드, 레이놀즈, 게일이 한국인 조수들과 함께 개역작업을 했다. 그러나 1916년 10월에 언더우드가 별세함으로써 개역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개역위원회는 1917년에 케이블(Elmer M. Cable 奇士台富 1874-1949)과 스톡스(Marion Boyd Stokes 都瑪蓮 1882-1968), 1918년에는 앵겔(George O. Engel 王吉志 1864-1939)과 어드만(Walter C. Erdman 魚塗萬 1877-1948)을 개역위원으로 보강하였다. 그러나 어드만은 자신이 성경 원전어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곧 사임했다.

이 때 개역을 주도한 사람은 게일이며 앵겔, 그리고 한국인 조수들(이원모, 이창직, 정태용 등)과 작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1921년 가을에 개역 본문의 성과를 측정해 보기 위해 창세기를 개역본문으로 출판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그 결과 게일이 주도한 개역 본문은 대영성서공회의 규칙서를 따르기 보다는 게일의 번역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일의 번역원칙은 요컨대, “문자적인 직역보다는 자유스러운 의역”(free, rather than literal)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비평가들은 게일의 원칙을 따르는 창세기 개역을 “단축된 풀이역”(abbreviated paraphrases)라고 규정했다. 게일이 주도하는 구역개역은 “매우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자주 생략했기 때문에 이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sup>21)</sup> 1921년부터 개역위원회는 신약개역소위원회와 구역개역소위원회(이하 구개위)로 나뉘어 작업을 하게 된다. 구역개역 작업은 대영성서공회 규칙서에 따라 방향재조정 되었고, 게일은 자신의 번역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922년 개역위원을 사임했다. 게일은 그가 주도적으로 작업한 구역개역 원고를 1924년 3월 상임성서실행위원회 앞으로 제출했다.<sup>22)</sup>

---

BFBS.

21) 김 중은, “구역성서국역사,” 36쪽 이하 참조.

22) 게일은 자신의 번역원칙을 굽히지 않고, 1925년 기독교창문사를 통해 자신과 이원모의 이름으

한편 1922년 이눌서가 미국여행으로 구개위에서 빠지게 되자,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裴偉良 1862-1931), 클라크(William Monroe Clark 康雲林 1881-1940), 하디(Robert A. Hardie 河鯉泳 1865-1949)가 구개위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이들과 함께한 한국인 조수들은 김 필수, 김 인준, 정 태용이다. 1922년 9월 민휴는 방향 재조정된 구개위의 사정을 영국 성서공회 본부 킬구어(R. Kilgour) 총무에게 보고하고, 한국의 구개위가 요구하는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과 긴스버그(Christian D. Ginsburg)가 편집한 히브리어 구약 원전 성경을 3권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sup>23)</sup> 그해 11월에 그에 대한 답신에서 킬구어는 구개위가 대영성서공회 규칙서를 따르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뜻을 전하고, 요청한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과 긴스버그가 편집한 대판 히브리어 성경과 3권의 소판 히브리어 성경을 보내니 구개위에 전달해 달라고 편지했다. 이렇게 해서 구개위는 적어도 이때부터 긴스버그 편 히브리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원전에 충실한 직역원칙으로 개역작업을 해 나갔다.<sup>24)</sup>

1924년 말에 레이놀즈가 미국에서 돌아와 다시 구개위에서 개역작업을 했다. 1925년에는 구개위 위원들이 거주지에 따라 서울분과(하디, 클라크, 케이블)와 평양분과(레이놀즈, 베어드, 엔겔)로 나뉘어 번역일을 했으나, 위원들 간에 시간조정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구개위의 작업은 지연되고 있었다.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구약 히브리어에 능한 책임자를 찾아 구약개역의 책임을 맡기려고 했다. 여기서 피터스가 책임자로 선택되어 1926년 1월부터 구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피터스는 동년 2월 1일 대영성서공회 규칙서를 수령하였고, 3월 26일에는 구개위의 “평생위원”(permanent member)로 위촉되었다. 이 때 민휴는 피터스에 관해 킬구어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히브리어 학자로서 그는 한국에서 그 어느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

---

로 「신역 신구약전서」를 출판했다.

23) Christian D. Ginsburg, *The Old Testament, diligently revised according to the Massorah and the early Editions, with the various readings from Manuscripts and the Ancient Versions*, (1908, 1926).

24)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40쪽 이하; 같은이,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1993.2), 30쪽 참조.

으며 그의 한국어 지식도 매우 탁월합니다.”<sup>25)</sup>

과거 언더우드와 게일이 피터스에 관해 평했던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내용인가! 그동안 피터스는 재혼한 의료선교사 부인과 함께 1913년까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그 후에는 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황해도 재령과 평안북도 선천으로 옮겨서 선교사업을 했다. 아마도 1926년에 구약개역 평생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피터스 부부는 1927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 동안 김 인준과 남궁 혁이 개역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피터스는 오전과 오후에 번역일을 하며 원전(the original text)을 앞에 놓고 세심하게 대조하여 개역을 하고 있다고 선교부에 보고했다. 1930년까지 레이놀즈, 베어드, 그리고 피터스 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 원모가 조수가 되어 구약개역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 1931년에 한국교회(장로회와 감리회)는 상임성서실행위원회에 한국에서 성서사업에 관해 함께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 두 교단에서 각각 대표 두 사람씩을 위원회에 파송하였다.

1931년 11월 베어드가 별세함으로 적어도 세 사람의 위원을 필요로 하는 구개위의 작업이 다시 어렵게 되었다. 피터스의 아내 에바 휠드가 1932년 7월에 타계했다. 피터스는 1933년 11월부터 1934년 8월까지 미국에 가 있었다. 피터스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가 속해 있던 미북장로회선교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피터스를 한국에 재파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당시 63세의 피터스를 결국 다시 한국에 파송한 것은 그가 한국에서 구약개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당시 민휴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런던에 있는 본부에 미리 알렸다:

“구약개역을 위한 핵심 인물로 우리가 피터스를 얻지 못한다면, 개역작업이 곧 끝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sup>26)</sup>

첫째, 둘째 아내와 사별한 후 1934년 피터스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앤

25)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43쪽.

26) 김 중은, “구약성서국역사,” 47쪽.

쿠퍼(Anne Cooper)와 결혼하고 그 해 가을에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1935년 새해부터 레이놀즈와 피터스가 다시 구약개역에 함께 박차를 가했다. 동년 3월에는 이 원모(李源謨)가 개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해 여름 내내 레이놀즈, 피터스, 이 원모 세 사람은 지리산에 있던 레이놀즈의 별장에 모여 남아있는 구약개역에 전력을 다 했다. 이러한 강행군의 결과로 피터스에 의하면 1936년 3월에 드디어 구약개역작업이 일단 끝이 났다. 1936년 12월에 이 구약 개역 전서가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1936년 판 개역 구약전서는 피터스가 본격적으로 개역작업에 관여하기 전에 개역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예컨대, 문체의 통일성과 번역의 정확도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특히 오경, 수, 샷, 룻, 삼상, 잠, 사, 렘, 합과 단 등이 지적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1936년 판 개역 구약본문을 피터스와 이 원모가 맡아서 다시 작업(수정과 필요한 경우 재번역)을 하였으며, 레이놀즈의 승인을 받아 1937년 8월까지 재개정을 마쳤다. 1937년 9월22일 상임성서실행위원회에서는 마침내 신구약 개역위원회의 개역완료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최종 확정된 개역 구약본문이 개역 신약본문과 함께 1938년 9월3일에 개역 성경전서로 출간되었다. 그 동안 구약개역은 1912년에 시작되었지만, 1922년에 방향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출발을 했으며, 1926년부터 피터스가 “평생위원”자격으로 구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1937년에 그 완결을 보았고, 1938년에 드디어 한국교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피터스는 그가 1941년 70세에 한국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기 바로 한해 전에 구약개역 작업에 관해 영문으로 된 기록을 남겼다.<sup>27)</sup> 이 글에서 피터스는 구약개역 작업의 난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히브리어 성경구절 중에 불명료한 개소들에 관해 뜻이 통하는 번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명료 개소들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적어도 12 종류의 성경번역을 참조했다(루터역, 개역 루터 성경, 러시아 정교회 역, 러시아 개역, 영어 흠정 역, 영어 개

27) Alex.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40.5), 78-80쪽.

역, 영어 마펫 역, 영어 굿 스피드 역, 영어 긴스버그 역, 두 종류의 한문성경, 일역 성서). 그 외에 정통과 자유주의를 망라한 주석들과 두 종류의 히브리어 사전을 사용했다.

2) 문제는 이러한 번역본들과 주석책들과 사전들의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의 불명료 개소에 관해 그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개역 위원들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고,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걸렸다. 때로는 표결하여 다수결에 따랐다(피터스는 여기서 겔 20: 39과 겔 39: 14의 예를 들고 있다).

3) 히브리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① 히브리어 원문의 3인칭 당위명령형(소위 “jussive”)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게하오”를 사용했다(또한 창 1: 3과 욥 3: 1-9에 나오는 3인칭 명령형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② 한국어 동사는 수동태를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한국어 수동태 동사를 만들어 썼고, 그것이 앞으로 한국인들의 귀에 익숙해지기를 바랐다.

③ 한국어 가정법은 과거와 미래 시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시제 가정법에는 그에 가장 접근하는 표현으로서 양보절을 사용했다(예컨대, 시 50: 12; 욥 16: 4).

④ 매우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은 분사와 또 다른 수식절들이 한국어에서는 언제나 수식하는 단어 앞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문장들, 예컨대 많은 수식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면서 어순을 다듬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예를 들면, 사 14: 19; 렘 32: 3-5).

⑤ 또 느 11장에 수 세대에 걸친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연속되고 있으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아들, ... 손자, ... 증손, ... 현손, ... 오대손, ... 육대손, ... 칠대손”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4)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의 적절한 상응어가 없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다(예컨대, 시편에 자주 나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에서 본래 한국어로 영원은 미래의 개념인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하나님’이란 신 명칭과 ‘이방종교의 귀신들’에 해당하는 ‘신들’을 번역하는데도 어려움을 느꼈다.

5)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시편과 욥기에 나오는 장엄한 운문을 가능한 한 운문그대로 살리면서 직역으로 뜻이 통하게 하는 것이었다(“... in a manner that would be as literal, as intelligible and as poetic as possible.”).

이러한 난제들을 가지고 개역위원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흘

를한 한국어로 구약을 번역하여 한국교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피터스는 회고하였다. 그래서 개역 구약 본문의 모든 불완전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개역성경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에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의 글을 끝맺었다.

##### 5. 보록: 피터스의 성경관과 성경연구 방법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 구약 번역의 주역인 피터스의 신학적 입장이나 성경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피터스는 그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성경연구에 관한 글은 별로 남긴 것이 없다. 그의 저서로는 「유치부 연구」(1927)가 알려져 있고, 「동화 구연법」(1927)을 역서로 출간한 바 있다. 둘째 부인 에바 휠드와 함께 수학교과서를 편찬하여 출판하였고, 또 일찍이 찬송가를 편집 출판하였으며(1909, 1925), 교리문답서를 편집하거나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국역 성경번역자로서 주목되는 것은 1897년에 기일(J. S. Gale)이 출판하기 시작한 한영사전(韓英字典)의 제3판을 피터스가 증보하여 편집 출판한 사실이다.<sup>28)</sup>

피터스의 신학적 입장과 그의 성경관을 알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는 1917년 11월에 그가 「신학세계」 잡지에 기고한 “성경연구의 방법”이란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9)</sup> 이 “성경연구의 방법”이란 글에서 피터스는 먼저 자신의 성경관을 비교적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신학적인 입장도 밝히고 있다. 그러한 연후에 피터스는 실제적인 성경연구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나타난 피터스의 성경관과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그의 성경연구 지침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터스의 성경관을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고 한다(109쪽).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혼합함이 마치 금광석에 금이 섞임과 같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28) A. A. Pieters,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The Christian Literary Society of Korea, 1927<sup>3</sup>, 1931). 초판에 3만5천 어휘에서 시작하여, 1927년 3판에서 7만 5천 어휘를 담고 있으며, 1931년판에서는 8만 2천 어휘로 증보되었다.

29) 감리교회협성신학교(간행), “피득 목사, ‘성경연구의 방법,’” 「신학세계」 제2권 4호(1917년 11월), 107-116쪽.

하나님이 기록자를 기계로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시켜 성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같은 쪽). 이 글에서 피터스는 사람이 기록한 점을 강조할 때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비록 성서의 기자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았을 지라도, 인간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고, 묵시(즉 계시, 필자 주)를 받았어도 그 기자의 성품과 학식은 전보다 다름이 없고 양심의 부족함도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성신의 묵시 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마치 햇빛이 유리의 색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피터스의 성경관은 오늘날 신정통주의 신학의 성경관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영감(“성신의 감동”)과 계시(“묵시”)를 말하고 있으며(그러나 신정통주의에서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경우는, 성경의 언어영감설을 실제영감설로 수정했다), 성경연구에서 의문은 생길 수 있으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은 삼가고 있는 점으로 볼 때(신정통주의는 성경의 오류를 인정한다), 피터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신학적인 배경에서 그의 성경관은 역시 복음주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피터스의 성경관이 복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는 주장(109쪽)에서는 다소 자유주의 신학사상(이를테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주장)의 반영을 염려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을 밝히는 대목에서 보면, 그의 신학적 입장이 결코 자유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해석에서 피터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같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뜻으로 쓴 내용이 아닌 줄은 기필코 믿어야 하며,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108쪽). 성경은 양심을 광명하게 하고, 양심은 성경의 이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서 피터스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이성” 대신에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피터스는 양심이 절대 표준이 될 수 없으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함을 전제하고 있다(108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세대 사람의 지식과 성품에 따라 짐차로 그 완전한 뜻을 나타내셨다고 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

전한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세대 사람이 다 지켜야 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예컨대, 노예매매, 첩을 두는 것,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주어 내보내는 것, 원수를 타살하는 것 용납 등을 들고 있다). 산상 보훈을 통해 예수께서 율법을 고쳐서 가르치신 것을 보면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110쪽).

피터스의 신학적인 입장과 그의 성경관은 “신학과 과학의 관계성”(110-113쪽)을 설명하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과학은 “세상 학문”인데, 학문과 성경이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만 관계된 것이라고 피터스는 말한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학식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빛을 막지 말고 용납하여 성경의 이치와 대조하여 연구하면 성경에 방해될 것이 아니요 더욱 명확하여질 지니라.”(111쪽)고 했다. 구체적으로 피터스는 성경과 세상학문이 상위되는 예를 들고 있다.

① 창 1장의 기록과 천문학이나 지리학과의 차이 ② 창조와 홍수의 역사적 사실과 고대 바벨론의 창조설화나 홍수설화와의 차이, ③ 6일 창조와 지리학의 몇 만 년 설의 차이, ④ 창 3장에서 인류 시조가 범죄 한 사건묘사의 사실성과 상징설의 차이(여기서 피터스는, “후자의 말도 그르다고 못 할 지니라”고 함으로써 상징적인 해석에 관해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놀랍다. 본 필자는 이 대목에서 롬 14: 1을 생각했다), ⑤ 성경의 1인 저작설과 다수 저작과 편집설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세상학문이 우리가 배운 성경의 이치와 반대되는 것이 혹 있으나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학문이 성경의 본의와 반대됨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묵시한 형편을 잘 배우지 못한 줄로 알고 다시 연구하면, 학문이 하나님의 묵시한 것과 반대됨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피터스는, “성경을 글자마다 하나님이 묵시한 것인 줄로 아는 사람 외에는 학문과 반대됨을 인하여 낙심할 이가 없나니라.”고 했다(112쪽).

성경의 친필원본이 없는 현실에서, 소위 “축자영감설”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피터스는 분명히 신학적인 근본주의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비평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피터스는 여기서 성서비평학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즉, 모세 5경의 저자가 모세 1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여러 백년 후 선지자들이 합하여 5경을 편집했다는 이론이 있으며, 이사야서를 이사야 1인이 저술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이하는 전반부 보다 약 150년 후에 기록했다는 설을 소개하고,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다른 저자설이 있음을 말하면서, “이런 주장을 들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에게 묵시함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묵시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선배의 말이 성경과 반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12쪽). 이러한 성서비평학에 대한 피터스의 입장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주의에서 진일보한 “신복음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관련하여, 피터스는 3천 년 전부터 구약과 성경의 말씀을 지켜 내려온 것을 볼 때, 성경 자체에 믿고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구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인의를 힘쓰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약은 예수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이요, “신약은 예수 오신 것과 행위와 하신 말씀과 사도의 일과 전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13쪽). 성경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한다고 했다. 성경 외에 다른 서적은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했다(113쪽).

피터스는 그의 글 마지막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침”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혜로써 연구”하라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분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나 예수의 말씀을 동일하게 알면 오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욥 42: 7-8 참조) 성경말씀은 서로 반대됨이 없다. 그런데 마치 성경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114쪽).

둘째는, 계획성 있게 노력함으로 연구해야 한다. 성경을 습관에 따라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읽은 본문만 연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배울 수는 있으나, 전편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재미도 별로 얻지 못하게 된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반드시 살펴보

고, 책 전체나 서신에서 저자의 형편과 본래 글 쓴 의도와 그 당시 독자의 형편을 먼저 알도록 해야 한다(115쪽).

셋째,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연구할 것”을 말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그 말씀을 기도로 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다. 묵상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상대하여 대화하는 것 같이 하며, 마음으로 성경말씀을 특별히 생각하여, 성경의 깊은 이치를 더욱 밝히는 것이다. 피터스는 일찍이 1901년 그의 선교사 지원서 17번 항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당신의 습관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적어도 매일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다. 그는 날마다 성경연구에 힘쓸 것을 권했으며, 성경연구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했다(115쪽).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큰 은혜가 되나니라”고 피터스는 그의 글을 끝맺고 있다(116쪽).

## 6. 맺는 말: 구약 국역사에서 피터스의 위치와 의의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알렉산더 피터스는 우리나라 구약 국역사에서 선구자이며 또한 구약 국역에 참여한 일과 함께 특히 개역시대 구약 개역의 주역으로서(1926-1938년에 집중적으로 공헌)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교과를 초월하여 “하나의 성경”으로 강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938년판 개역성경의 구약본문을 완결한 장본인이다. 피터스는 러시아계 유대인 출신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1895년에 만 24세의 미혼 청년으로 한국에 와서 미국성서공회와 대영성서공회의 권서로 활동하면서 1898년에 최초의 국역 구약성경인 시편촬요를 출판하였다. 1900년에 미국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으며 목사안수를 받고 선교사 지망을 했다. 그는 1904년 5월16일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 받았다.

피터스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주로 순회전도, 교회개척과 설립, 사경회 인도,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선교부의 재정 관리 회계와 언어 분과의 위원으로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피터스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구약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다. 피터스는 1901년 미국 장로회 해외선교부에 제출한 선교사 지원서 5번 항목에서 “영어 외에 어떤 언어들을 공부했는가?”라는 물음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었다: “라틴어, 희랍어, 고대 슬라브어, 히브리어, 불어를 공부했으며, 영어, 러시아어, 이디쉬어(yiddish), 독일어, 한국어로 회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어서 “언어들을 습득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Languages are not difficult for me to acquire.)”고 했다(피터스의 1901년 선교사 지원서: Reproduction from original in the collections of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425 Lombard St., Phila., PA.). 성경번역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보다 영적인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원어 지식 및 그와 관련된 어학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 국역사에서 피터스는 어느 선교지 성경번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약번역자로서는 독특하고도 탁월한 자질을 구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은(특히 구약의 경우) 처음부터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한문성경이나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선교사 역으로서 오류가 많다는 설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구약 국역사에서 피터스의 역사적인 위치와 그의 국역 활동의 의의를 조명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낭설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46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조직되었고, 1949년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가입하였다. 대한성서공회는 1938년 판 개역성경전서를 새로운 한글 맞춤법에 따라 철자법을 고쳐 1956년에 출판하였고, 1961년에 다시 약 815개소의 자구수정을 하여 한글개역 성경전서가 확정 출간되었다.<sup>30)</sup> 이 1961년 판 개역성경전서를 1983년부터 ‘나 채운 팀’이 개정 작업을 위한 개정원고를 준비하였고, 1993년부터 각 교단에서 파송된 대표들이 성경전서 개역 개정감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된 개정원고를 기초로 하여 개역개정판 본문을 확정하였으며, 1998년 8월에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초판이 출판되었다. 민영진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

30) 대한성서공회(편), “한글성경 표기의 기초를 세운 사람 김 태룡,” 「성서한국」 제44권 2호(대한성서공회, 1998년 여름), 25-27쪽 참조.

“더 좋은 번역을 만들려는 열성을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작업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곳을 개정하게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언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꼭 고쳐야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번역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현재의 개역 성경이 시대 시대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래도록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읽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sup>31)</sup>

이렇게 볼 때, 피터스(와 이 원모)의 1938년판 구약 개역본문은 1998년판 개역개정 구약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현재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32)</sup>

## 7. 참고문헌

- 감리교회협성신학교(간행), 「피득 목사, ‘성경연구의 방법’, 「신학세계」 제2권 4호(1917년 11월), 107-116쪽.
- 김 인수 (옮기고 엮음),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 편지, 1885-1916」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김 중은, “「한글성경 개역개정판 구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년 8월 31일) 초판에 대한 서평, 「교회와 신학」 제35호(1998년 겨울호), 196-199쪽.
- \_\_\_\_\_,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55쪽.
- 대한성서공회(편), “한글성경 표기의 기초를 세운 사람 김 태룡, 「성서한국」 제44권 2호 (대한성서공회, 1998년 여름), 25-27쪽.
- 류 대영/옥 성득/이 만열, “구약과 개역성경의 번역과 출판,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3-204쪽.
- \_\_\_\_\_, “한국어 성경 서지목록,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683-690쪽.
- 민 영진, “우리말 번역 성서,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181-195쪽.
- \_\_\_\_\_, “피득의 시편촬요, 「감신대학보」 17호(1979).
- 민 휴, “조선어성경의 유래, 류 형기(편), 「단권성서주석」 (서울: 송문사, 1949).
-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 성경번역자, 찬송가 작

31) 민 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대한성서공회, 2003), 10쪽.

32) 개역개정판 구약 본문에 관해서는, 김 중은, “「한글성경 개역개정판 구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년 8월 31일) 초판에 대한 서평, 「교회와 신학」 제35호(1998년 겨울호), 196-199쪽 참조. 개역개정판은 2000년 제2판, 2003년 제3판에서 제한적인 자기수정이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개역개정판 관주 성경전서 초판이 나왔다.

- 사자, 복음전도자, 1895-1911,” 「평양대부흥 100주년기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조명」 (서울: 내국교회와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21-79쪽.
- 옥 성득/이 만열(윤키고 엮음),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298-673쪽.
- 정 비호, “시편촬요(1,2,8편)에 나타난 피터스의 번역원칙이 한글성서번역에 끼친 영향 연구-MT, 문리역(1910), 구약전서(1930), 시편(1936)과의 비교,” (김리교신학대학원 구약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 Ginsburg, Christian D., *The Old Testament, diligently revised according to the Massorah and the early Editions, with the various readings from Manuscripts and the Ancient Versions*, (1908, 1926).
- Pieters, Alexander A.,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The Christian Literary Society of Korea, 1927<sup>3</sup>, 1931).
- \_\_\_\_\_,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40.5.), 78-80쪽.
- \_\_\_\_\_,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38), 91-93쪽.
- \_\_\_\_\_, “Report for the year 1906-1907,” 박 용규, “알렉산더 피터스 ... ” 재인용.
- Reynolds, W. D., “Translation of the Scripture into Korean,” *The Language Files of the Translations Department, Korean I, 1901-1922* (BFBS) = 「1910년 구약 구역 완료 보고서」.

## 검색어

피터스  
시편촬요  
구역구약성경  
개역구약성경

---

The Significance of Alex. A. Pieters'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

**Joong-Eun Kim**,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heology Studies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resent article purports to enlighten Alexander Albert Pieters work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his translation of the Psalms, 'Si Pyeon Chwal Yo' the Ol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OVKTOT) and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RVKTOT), alongside his activities, will be examined in the article.

Pieters was born on the 30th of December, 1871, and died on the 29th of June, 1958. He selected 62 psalms, apart from imprecatory ones out of total 150 psalms, and translated them into Korean. Twice in October and November 1898, Methodist Sam Mun Publishing in Seoul printed 2500 copies and published the work, entitled, 'Si Pyeon Chwal Yo' It was the very first Korean translation of a book from the Old Testament book ever published, and later OVKTOT (1911 edition) and RVKTOT owed a lot to it. 'Si Pyeon Chwal Yo' is written in easy

Korean, exhibits poetic rhythm and bears resemblance to the original Hebrew quite closely.

Authorized Translation Committee began its Old Testament translation from October 17th, 1904, and published the books of Genesis and Psalms in 1906. The work was assisted by Pieters' helpful 'Si Pyeon Chwal Yo' Finally on the 2nd of April, the entire books of the Old Testament was completed (it took 5 years, 5 months and 16 days). On the 9th of March 1911, the very first Korean Holy Bible (the Old and New Testaments combined) was published. It consisted of 2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and 1 volume of the New Testament, which were the Ol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Since the use of proper nouns in the 1911 edition of OVKTOT was not consistent, W.D. Reynolds and his Korean assistants, from July 1912, set out constructing a writing system of proper nouns, which was accepted by the committee of the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in 1913.

In March 1936, the RVKTOT was completed. The version was aimed to be made as closely as possible to Ginsburg's Hebrew Bible, in the principle of literal rendering of the original language. On December 1936, the RVKTOT was published.

Pieters, from January 1926, worked as a lifelong member of the committee of the Revised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He, together with Won Mo Lee, worked on tuning the literary style and accuracy of the OT revised translation of 1936, finishing the revision definitely in August 1937. On the 3rd of September 1938, the work was published, in a set with the New Testament, as the Revised Version of the Holy Bible.

Undoubtedly Alexander Pieters is a pioneer in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he indeed was an important man in creating the OVKTOT and revising it to give birth to the RVKTOT. It is now clear that OVKTOT is not rendered from any Chinese or English versions of the Bible, but directly translated from the Hebrew texts. Pieters certainly played a central role especially in the translation of

the RVKTOT.

**Keywords**

Pieters

'Si Pyeon Chwal Yo'

Ol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Revised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